

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 - MBC 뉴스데스크 서울경찰청 관련 정정보도를 보고 -

지난 11월 11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서 서울경찰청 관련 정정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에 방송된 '경찰청 카드깡' 보도가 사실과 다른 보도이므로 바로잡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를 보는 순간 저는 새삼 신기한 무엇을 보는 듯했습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내 제 가슴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업무상 기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언론관계에 특히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는 경찰 공무원 조직이 언론사를 상대로 재판까지 거쳐서 끝내 정정보도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스스로 호주머니를 털어서 소송비용을 마련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옛날에 저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으로 대견스럽고 고맙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언론중재위를 통한 부처의 보도대응으로 게재된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이 매년 100여 건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이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고된 작업을 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판을 살피고 잘못된 보도 하나를 바로 잡기 위하여 밤늦은 시간에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사정하던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당당하게 잘못된 보도의 정정을 요구하고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는 정도(正道)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큰 권력입니다. 언론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감추어 주고 부당한 이익이나 특권을 나누어 가지는 일이 용납된다면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언론의 감시가 어떤 사정기관의 감시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은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경우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감시는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지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거나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당한 권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보도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대안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부분의 정보와 판단을 언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언론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책임 없는 비판을 하게 되면 국가정책은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보도와 비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의 신뢰도 바로 서고 나아가서는 언론의 신뢰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특권의식을 버리지 않고, 진실과 책임, 그리고 공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낡은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먼 훗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신념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겠습니다.